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6요인 양육태도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Received: July 3, 2024
Revised: July 31, 2024
Accepted: August 8, 2024

양아름¹, 최은실²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¹,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²

교신저자: 최은실
가톨릭대학 심리학과
(14662)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미카엘관

E-MAIL:
ces726@catholic.ac.k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ix-Factor Parenting
Attitudes Scale for Caregivers of Pre-School Children

Areum Yang¹, Eun Sil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²

* 본 연구는 2024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구두발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ABSTRACT

본 연구는 취학 전 영유아 자녀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태도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기반하여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자녀의 욕구를 지지하거나 좌절시키는 6가지 양육태도를 자율성 지지, 통제, 구조, 비밀관성, 온정, 거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79개 초기문항을 개발하고 내용타당도 검증 및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63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영유아 자녀의 어머니 592명을 대상으로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6개 하위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최종 30문항을 확정하였으며, 본조사에서는 영유아 자녀의 어머니 549명을 대상으로 최종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관련 척도와 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를 통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6요인 양육태도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근거로 합리적-경험적 방식으로 영유아 자녀의 양육자를 위한 양육태도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상 및 교육 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양육태도의 구조와 구체적 기제를 설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음에 연구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영유아 양육자, 6요인 양육태도척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자기결정성 이론



© Copyright 2024,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아동의 발달은 개인, 가족, 사회 등 다양한 환경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맥락적 요인 중 양육은 아동의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꾸준히 제시되어왔다. 즉, 양육은 아동의 정서, 행동, 학업,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된다(유지연, 황혜정, 2022; Roksa & Potter, 2011). 더불어 양육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신병리에 대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신병리 간 연관성을 밝혀왔으며(Hoeve et al., 2009) 아동 대상의 증거 기반 심리·사회적 개입들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려움을 다루고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에 대한 개입을 권고한다(David-Ferdon & Kaslow, 2008). 부모의 양육방식과 양육태도에 대한 평가와 연구는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신병리와 관련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이며, 양육에서의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아동의 발달과 문제행동에 양육이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어떠한 양육태도를 지향하고 어떠한 양육태도를 유의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 도서,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와 출처를 통해 양육에 대한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양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동시에 막연히 이상적으로 좋은 양육태도 보다는 좋은 양육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 명확히 정의 내리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커져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맥락에 맞추어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를 개념화하되, 양육태도의 구조와 영향을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유아기는 양육에 의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는 시기로 양육자는 자녀가 영유아기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비일관적이고 가혹한 양육은 영유아기 이후의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주며(Romano et al., 2006) 영유아기의 양육은 영유아의 자기개념, 자기조절, 공감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유지연, 황혜정, 2022; 황윤세, 2023; Edward & Liu, 2002). 영유아기 양육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양육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영향을 검증해왔다(Bornstein, 2019). 이렇듯 문제행동과 긍정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양육 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개입하기 위한 영유아기 양육태도에 대한 척도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를 위해 먼저 양육태도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양육태도는 특정한 구체적 행동 그리고 감정 등 추상적 태도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개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동에 반영되므로 행동에 대한 기술을 통해 측정되어 왔다(허묘연, 2004).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기대, 양육신념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부모의 행동적 차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차현주, 2020).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적 모델 및 평가와 관련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지금까지의 양육에 대한 연구들은 양육태도를 크게 유형론적 접근과 차원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유형론적 접근에서는 양육태도를 기본 양육 차원의 조합으로 구성된 유형(typology) 또는 구성(configuration)으로 바라보며, Baumrind(1971)는 양육태도는 각 부분의 합 이상의 게슈탈트(Gestalt)로 간주되

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유형론적 접근의 연구는 대다수 Baumrind(1971, 1991)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Maccoby와 Martin(1983)은 기존의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양육태도, 권위적(authoritative) 양육태도, 허용적(permissive-indulgent) 양육태도에 방임적(indifferent-uninvolved) 양육태도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각 유형을 ‘요구/통제(demandingness)’와 ‘반응성(responsiveness)’의 두 차원의 조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구성론적 기반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양육태도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 문제 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권위적 양육태도는 긍정적 결과와 관련되었고 나머지 3개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과 관련되는 연구결과가 중복해서 검증되었다(Baumrind, 1989; Jewel & Stark, 2003). 이러한 유형론적 접근에서는 부모의 전체적 양육 특성을 간단히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양육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차원이 양육 유형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설명량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Soenens et al., 2019). 즉, 유형론적 접근에서는 각 차원이 아동의 발달에 어떻게 관련되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 양육 차원을 결합하여 유형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손실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Barber, 1996; Skinner et al., 2005).

차원론적 접근은 양육 유형을 차원으로 분해하고 양육에 대한 특정 차원에 주목하여 이러한 특정 양육 차원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들로 이어진다(Barber, 1997; Henman et al., 1997). 차원론적 접근의 연구들은 특히 Schaefer(1965)의 초기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Schaefer의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수용(acceptance) 대 거부(rejection)’, ‘심리적 자율성(psychological autonomy) 대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 ‘엄격한 통제(firm control) 대 느슨한 통제(lax control)’의 세 가지 핵심 차원을 양육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Schaefer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특정 양육 차원을 개념화하고 각 양육 차원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오성심, 이종승, 1982; 이숙, 1991; Barber, 1996; Gray & Steinberg, 1999; McKee et al., 2013). 이러한 과정에서 차원론적 접근의 학자들은 Maccoby와 Martin(1983)이 제시한 ‘요구/통제’의 개념을 ‘행동 통제(behavioral control)’와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통제’에 대한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특정 양육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관련하여, Barber(1996)는 부모의 ‘행동 통제’를 자녀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양육 행동으로 규칙 설정, 모니터링, 일관된 훈육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이와 구분되는 차원으로 ‘심리적 통제’는 죄책감 및 수치심 유발, 애정 철회 등의 심리적 방식을 통해 부모의 행동을 강요하는 부정적 양육태도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차원론적 접근에서는 각 세부 양육태도 요인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특정 영향과 구체적 과정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제공하였으나 새로운 논란을 제기하였다. 특정 양육 차원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균형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면서 세부 양육태도 요인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Soenens et al., 2019). 예를 들어, 심리적 통제 차원이 활발히 연구되면서 심리적 자율성은

연구에서 적은 관심을 받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 통제의 낮은 점수를 자율성 지지가 높은 것으로 혹은 심리적 통제와 자율성 지지를 연속선의 점수에서 극단에 배치하여 해석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Joussemet & Mageau, 2023). 즉, 차원론적 접근의 연구들에서는 관련 양육태도 차원의 양극을 가정하여 한 쪽 요인(예: 수용)에서의 높은 점수가 다른 쪽 요인(예: 거부)에서의 낮은 점수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실제 양극 차원의 각 요인 특징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양육태도(예: 수용과 거부가 모두 높음)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제안되었고 후속 연구들에서는 양육태도에 대한 양극을 가정하는 모델 보다 단극을 가정하는 모델에서 훨씬 더 높은 설명력과 적합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Johnson, 2004; Skinner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에 대한 차원론적 접근을 기반으로 단극 차원을 가정한 양육태도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편, 양육과 관련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양육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부족한 실정이다(Locke & Prinz, 2002; Reid et al., 2015). 무엇보다 양육태도 측정도구와 관련해 여러 학자들은 과거의 양육태도척도들의 심리측정학적 수치가 좋지 못한 문제(Morsbach & Prinz, 2006; Peisch et al., 2017)와 함께 대부분 척도에서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을 뒷받침할 이론이 부재하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양육태도에 대한 측정도구들이 아동 발달에 대한 이론에 근거해 개발되지 않고 경험적 접근에 따라 주로 개발되면서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이 아동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연구자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양육태도에 대한 개

념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Farkas & Grolnick, 2010; Manongdo & Garcia, 2011). 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개념화는 자녀에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은 양육 행동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행동이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명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Grolnick & Lerner, 2023).

이러한 맥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양육과 발달을 저해하는 양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에 주목하고 심리측정학적으로도 양호도를 확보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초기에 자기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내재적 동기화에 대한 이론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인간의 동기, 성격 발달, 안녕감에 대한 일반적 이론 모델로 확장되어왔다. 특히,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기본심리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자율성의 욕구 충족은 심리적 자유, 진정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택권 경험 등과 관련되며, 유능감의 욕구는 자신이 잘 기능하고 있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충족되고, 관계성의 욕구는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충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욕구에 대한 충족은 아동기에서의 발달, 성장 및 적응뿐만 아니라 전생애 발달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Grolnick & Lerner, 2023). 반대로 이러한 욕구의 좌절은 자기감(sense of self)을 침해하여 건강과 정신병리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artholomew et al., 2011; Ryan et al., 2016).

특히, 양육자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가장 밀접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대상으로 영유아의 기본심리욕구를 지지하고 좌절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대로 아동의 기본 욕구를 지지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는 양육 차원에 주목하였다(Grolnick et al., 1997; Joussemet et al., 2008). 구체적으로, 양육자가 자녀의 선택권, 주도권을 지원하고 자녀가 자유 의지를 경험하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의 양육 차원은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지지할 수 있으며, 양육자의 기준과 잣대로 자녀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자녀의 행동을 강요하는 '강압(coercion)'의 양육 차원은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좌절시키는 양육태도로 제시된다(Grolnick, 2003). 다음으로 양육자가 일관된 기준과 안내를 전달하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자녀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행동을 포함한 '구조(structure)'의 양육 차원은 자녀의 유능감 욕구에 대한 충족을 지원하며, 양육자가 임의적이고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여 자녀의 통제감, 성취를 방해하는 '혼돈(chaos)'의 양육 차원은 자녀의 유능감 욕구에 대한 좌절과 관련될 수 있다(Farkas & Grolnick, 2010; Soenens et al., 2017).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정서적 가용성, 반응성, 자녀에게 에너지를 할애하고 관심을 가지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참여(involvement)'의 양육 차원은 자녀의 관계성 욕구 충족을 지지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부재하고 자녀의 도움 요청에 반응하지 않고 적대감 등 적극적인 부정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부(rejection)'는 자녀의 관계성 욕구를 좌절시키는 양육 차원으로 제시될 수 있다(Grolnick & Slowiaczek, 1994).

이상의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되는 6가지 양육태도

차원은 과거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강조되고 검증되어왔던 핵심적인 양육태도의 개념과도 연결되면서 자녀의 발달에 양육이 주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가진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Skinner et al., 2005; Soenens et al., 2019). 실제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 및 좌절과 관련되는 양육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참여, 구조, 자율성 지지가 아동기 전반의 다양한 발달 영역과 긍정적으로 관련됨을 확인하였으며(김소현, 김아영, 2012; 김아영, 차정은, 2010; Brenning et al., 2015; Farkas & Grolnick, 2010; Grolnick & Lerner, 2023; Soenens et al. 2017), 거부, 혼돈, 강압의 양육태도가 아동기 정신병리와 정적으로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다(권미나, 2023; 백은주, 이진숙, 2024; Jousseme et al., 2008; Skinner et al., 2005; Soenens et al., 2017).

한편, 국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양육태도검사와 척도들은 Schaefer나 Baumrind의 척도를 수정, 번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계를 가지며, 과거에 개발된 척도들은 통계적 분석의 한계, 하위요인 간 내용에서 중첩과 같은 비판점이 보고된다(김소현, 김아영, 2012; 차현주, 2020). 특히, 국내에서도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양육태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일부 있으나(김소현, 김아영, 2012; 김태명, 이은주, 2017; 정교영, 신희천, 2011) 6가지 양육태도를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한정적이며 특히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국내 척도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해 국내 환경적 맥락 및 영유아 자녀의 발달단계를 반영하여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양육태도척도를 개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양육에서의 6가지 요인이 아동의 발달과 문제행동에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6요인 영유아 양육태도척도의 요인 구조와 신뢰도는 적절한가?

연구문제 2-1. 6요인 영유아 양육태도척도의 타당도는 적절한가?

연구문제 2-2. 6요인 영유아 양육태도척도는 기존의 양육태도척도, 양육효능감 및 자녀의 문제행동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6요인 양육태도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는 전국의 만 1세 ~ 만 6세 영유아의 양육자 592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은 전문 데이터 수집 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영유아 자녀의 연령 범위는 만 1세 48명(8.1%), 만 2세 57명(9.6%), 만 3세 181명(30.6%), 만 4세 143명(24.2%), 만 5세 131명(22.1%), 만 6세 32명(5.4%)에 해당하였고, 영유아 자녀의 성별은 남아 300명(50.7%), 여아 292명(49.3%)이었다. 거주 지역은 경기(196명, 33.1%), 서울(136명, 23.0%), 인천(39명, 6.6%), 광주(28명, 4.7%), 부산(27명,

4.6%), 대구(23명,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학력은 대졸(454명, 76.7%), 대학원 졸업 이상(69명, 11.7%), 고졸 이하(67명, 11.3%), 기타(2명, 0.3%) 순이었으며, 연령은 20대(21명, 3.5%), 30대(425명, 71.8%), 40대(143명, 24.2%), 50대 이상(3명, 0.5%)에 해당하였고, 양육자는 모두 어머니로 구성되었다.

본조사

본조사에는 예비조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국의 만 1세 ~ 만 6세 영유아의 양육자 549명이 참여하였다. 대상자는 전문 데이터 수집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영유아 자녀의 연령은 만 1세 56명(10.2%), 만 2세 70명(12.8%), 만 3세 140명(25.5%), 만 4세 131명(23.9%), 만 5세 127명(23.1%), 만 6세 25명(4.6%)에 해당하였다. 영유아 자녀의 성별은 남아 282명(51.4%), 여아 267명(48.6%)이었다. 거주 지역은 경기(154명, 28.1%), 서울(109명, 19.9%), 부산(38명, 6.9%), 광주(29명, 5.3%), 대구(27명, 4.9%) 등의 순이었다. 양육자의 학력은 대졸(434명, 79.1%), 대학원 졸업 이상(54명, 9.8%), 고졸 이하(61명, 11.1%) 순이었으며, 연령은 20대(14명, 2.6%), 30대(405명, 73.8%), 40대(129명, 23.5%), 50대 이상(1명, 0.2%)에 해당하였고, 양육자는 모두 어머니로 구성되었다.

연구도구

6요인 영유아 양육태도척도

영유아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자 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합리적-경험적 접근(rational-empirical approach) 방식으

로 개발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근거해 자녀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3요인(자율성 지지, 구조, 온정)과 좌절시키는 3요인(통제, 비밀관성, 거부)의 6요인을 기반으로 예비문항을 개발하여 최종 30문항을 선정하였다. 응답 방식은 6점 Likert식으로 구성되었다(1점: 전혀 아니다 ~ 6점: 매우 그렇다).

부모 양육행동 질문지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Reid 등(2015)이 개발한 부모 양육행동 질문지(The Parenting Behavior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 PBDQ)를 정영선과 박경자(2021)가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BDQ는 기존의 양육 척도 문항과 부모 인터뷰를 기반으로 문항을 재구성, 타당화한 척도로 3세 ~ 12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정서적 온정, 처벌적 훈육, 불안한 침해, 자율성 지지, 허용적 훈육, 민주적 훈육의 6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총 33문항,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6점: 매우 그렇다). 정서적 온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애정과 정서적 지지를 반영하며, 처벌적 훈육은 가혹한 태도, 심리 상태나 기분에 따르는 훈육 정도를 나타낸다. 불안한 침해는 부모의 관여, 간섭적 도움, 허용이 높음을 나타내며, 자율성 지지는 반응적이고 적절한 비계설정을 제공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허용적 훈육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유아에게 행동적 자유를 허용하는 정도와 비밀관성, 불규칙성을 반영하는 양육태도와 관련되며, 민주적 훈육은 수용적이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제공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하위영역 별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양육행동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정서적 온정 .79, 처벌적 훈육 .84, 불안한 침해 .53, 자율성 지지 .78, 허용적 훈육 .69, 민주적 훈육 .78로 나타났다.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Meunier와 Roskam (2009)이 개발한 Echelle Gol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s(EGSCP)를 성지현과 백지희(2011)가 우리나라 1세 ~ 7세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를 사용하였다. K-EGSCP는 다양한 양육 상황에서 영유아 부모의 영역별 양육효능감과 인지구조를 측정하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K-EGSCP의 영역별 양육효능감에 속하는 애정, 일상체계조직, 훈육, 놀이, 교육의 5가지 하위요인, 2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0 ~ .86으로 나타났다.

유아행동평가척도 부모용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Achenbach와 Rescorla (2000)가 개발한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1.5-5를 오경자와 김영아(2008)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유아행동평가척도 부모용(K-CBCL 1.5-5)을 사용하였다. K-CBCL은 영유아의 정서·행동 문제를 측정하며, 6개 하위요인과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문제행동 총점을 제공한다. 총 60문항으로 구성되며 3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고 점수가 높으면 해당 문제행동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 및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점에 대한 내적합

치도 계수(Cronbach's α)는 .69 ~ .95에 해당하였다.

연구절차

문항 개발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기반하여 자녀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지지하거나 좌절시키는 6가지 요인을 구분하여, 양육태도척도의 하위요인을 자율성 지지, 통제, 구조, 비밀관성, 온정, 거부로 확정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 및 양육태도와 관련한 문헌과 선행연구 결과, 영유아 자녀 양육자에 대한 국내외 양육 관련 척도들(예: 김소현, 김아영, 2012; 이원영, 1983; 정교영, 신희천, 2011; 정영선, 박경자, 2021; 조복희 등, 1999; Clerkin et al., 2007; McEachern et al., 2012; Parent & Forehand, 2017; Reid et al., 2015; Skinner et al., 2005)을 검토하고 영유아 자녀의 어머니, 발달심리학 박사과정생 5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79문항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에 대해 발달심리전문가 및 아동상담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평정을 실시하고 Waltz와 Bausell(1981)이 제안한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여 0.75를 초과하는 경우 문항 적절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하였다(Yaghmaie, 2003). 내용타당도 평가에서 CVI가 0.75 보다 낮은 경우 삭제 및 수정을 고려하였으며 영유아 자녀의 어머니 4인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실시하여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항이 하위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방식과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경우 추가 삭제 및 수정을 진행하였다. 내용타당도 평가와 파일럿 테스트 결과에 대한 분

석을 통해 16개 문항을 삭제하고 일부 문항의 문장을 수정하여 초기문항 중 63문항을 예비조사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

2023년 10월 진행된 예비조사에서 전국의 만 1세 ~ 만 6세 영유아 자녀의 양육자 592명이 전문 데이터 수집 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63개 양육태도척도 예비문항에 응답하였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서의 온라인 설문 과정에서는 윤리적 규정에 따라 연구 목적을 안내하고 비밀 보장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에 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위해 본 조사에서 전국의 만 1세 ~ 만 6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자녀 양육자 549명을 대상으로 2024년 3월 전문 데이터 수집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양육자들은 최종문항으로 구성된 양육태도척도를 실시하고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PBDQ와 K-EGSCP, K-CBCL 1.5-5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에 참여한 549명은 모두 양육태도척도 최종문항에 응답하였고 대상자들 중 235명은 PBDQ, K-EGSCP에 같이 응답하였으며, 영유아 자녀의 어머니 254명은 K-CBCL 1.5-5에 함께 응답하였다.

자료분석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을 활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제고하고 문항의 양호도를 판별하였다(Meir & Gati, 1981). 다음으로 각 요인 별 총점과 문항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가 .20 ~ .30 이상일 시 문항을 수용하고(Gable & Wolf, 1993) .20 보다 낮으면 삭제를 고려하였다(Tabachnick & Fidell, 2011). 더하여 문항이 각 하위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 내 문항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간 상관이 매우 낮은 경우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상관계수가 .20 이하일 경우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보고 삭제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구조 확인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공통요인 분석 방법인 주축요인방식과 사각회전인 프로맥스(promax)를 활용하였다.

본조사

예비조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결정된 문항들이 다른 표본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나타내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 모집된 549명의 설문 자료를 가지고 Mplus 7.0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적합도를 분석하고 요인부하량을 검토하였다. 문항의 모수 추정치 확인을 위해 표준화 회귀계수를 확인하고 구성된 척도의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각 요인에 대한 문항에서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여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요인 간 상관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양육태도와 관련있는 다른 척도와 의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예비조사-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문항 양호도 분석을 위해 63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다. 문항 평균이 편포되어 있는 경우, 문항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McCoach et al., 2013) 문항 평균이 극단치에 가깝거나 표준편차가 0.7 미만인 경우 문항의 삭제를 고려하였다(탁진국, 2007). 또한,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클 경우 그리고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클 경우 극단치로 간주하고 삭제를 고려하였다(Kline, 2011). 예비 63문항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값이 모두 수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Barlette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이 .00으로 나타나($\chi^2 = 15985.565$, $df = 1953$, $p < .001$) 전반적으로 변수들의 값이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KMO 지수는 .942로 김계수(2013)가 제안한 .80 보다 높아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축요인 추출과 프로맥스 사각회전을 실시한 결과, 제곱합 적재량이 5 ~ 12요인 사이에 고유값 1의 범위에 있었다. 요인 수에 따른 해석 가능성과 이론적 근거를 고려하여 하위요인의 수를 6개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에 해당하면서 다른 요인과의 교차요인 부하량이 .10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문항을 추출하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33문항을 삭제하였다.

결과적으로 30문항을 최종 선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 KMO 지수는 .908이었고 Barlette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이 .00으로

표 1. 최종 30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 상관 및 내적합치도 (N=592)

요인	요인 번호	문항내용	요인부하량(매턴행렬)						문항 요인 상관	Cronbach's <i>a</i>
			1	2	3	4	5	6		
거부	6	나는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힘들다.	.87	.02	-.13	-.06	-.11	.07	.78**	.82
	7	우리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한다.	.71	-.06	-.10	.20	-.04	.04	.79**	
	9	나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아이를 양육했으면 한다.	.70	.00	.04	-.09	-.01	-.05	.75**	
	10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이만 보면 짜증이 난다.	.56	-.06	.23	.09	.06	-.12	.77**	
	11	나는 도대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49	-.14	.20	.02	.10	.14	.73**	
자율성 지지	3	나는 아이가 스스로 흥미나 활동을 선택하게 한다.	.04	.46	.25	-.07	.07	-.05	.66**	.75
	4	나는 아이가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15	.69	-.03	-.04	.08	-.02	.72**	
	5	나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시간(기회)을 준다.	-.09	.64	.13	.19	-.11	.08	.76**	
	6	나는 아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대신 해주기보다는 혼자 하도록 지지한다(예: 혼자 걸기, 혼자 옷 벗기, 혼자 손가락 사용하기 등).	.15	.54	-.14	-.06	.01	.15	.73**	
7	나는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극복하도록 기다려준다(예: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나도록 기다려줌).	.01	.68	-.04	.00	-.06	-.07	.70**		
은정	1	나는 아이에게 자주 애정표현을 한다.	.00	-.11	.88	-.12	.12	-.16	.72**	.80
	2	나는 아이와 따뜻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낸다.	-.03	-.04	.68	.02	-.07	.12	.77**	
	3	나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다독여준다.	.03	.08	.63	-.10	.02	.04	.75**	
	4	나는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아이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낸다.	.08	.27	.41	-.05	-.15	-.02	.71**	
	5	나는 아이의 다양한 감정에 충분히 공감해준다.	-.06	.11	.52	.21	-.09	.10	.77**	
통제	1	나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행동을 고칠 때까지 잔소리를 한다.	-.11	-.14	-.07	.72	-.04	.03	.64**	.72
	3	나는 아이를 훈육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전에 잘못했던 행동을 반복해서 상기시킨다.	-.05	.03	-.12	.56	.11	.04	.68**	
	5	나는 아이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감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10	.19	.00	.48	.12	-.16	.69**	
	9	나는 아이에게 “안돼” “하지마”라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	.17	.06	-.01	.43	-.01	-.07	.67**	
	13	나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08	-.02	.04	.66	-.05	-.05	.76**	
비일관성	2	나는 아이가 잘못을 할 때 벌을 줄 때도 있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다.	-.07	-.15	.04	.18	.47	.10	.66**	.73
	3	나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짜증을 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이의 요구를 들어준다.	-.14	.01	-.05	.06	.68	.12	.73**	
	4	나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야단을 쳐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	-.02	-.10	.11	-.05	.66	.06	.71**	
	5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 기준이 자주 바뀐다.	.07	.07	.11	.20	.40	.05	.66**	
	6	나는 아이가 징징거리거나 힘들어하면 아이의 요구를 들어준다.	.17	.28	-.16	-.14	.60	-.08	.70**	
	7	우리집에는 지켜야하는 규칙이 있다.	-.06	-.01	.01	-.11	.07	.69	.73**	
구조	5	나는 부모로서 리더십이 있다.	.09	-.04	.08	.06	.03	.56	.72**	.76
	7	나는 아이에게 계획이나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미리 알려준다.	.03	.16	.17	-.04	.07	.32	.69**	
	8	우리 집은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01	.00	-.12	.00	-.02	.77	.76**	
	11	나는 아이를 칭찬할 때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07	.18	.20	-.06	-.01	.33	.68**	
고유지 설명변량			7.65	2.85	2.14	1.44	1.34	1.04	54.84	.89 (전체)
			25.50	9.51	7.12	4.80	4.46	3.45		

표본 적절성 KMO 측도: .91, Barlette의 구형성 검정 $\chi^2 = 5892.99$, $df = 435(p < .001)$

나타나($\chi^2 = 5892.988$, $df = 435$, $p < .001$)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54.84%를 설명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30 이상으로 나타났다($\lambda = .32 \sim .88$).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패턴행렬의 결과를 요인부하량 순서로 각 요인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5문항으로, 부모가 심리적·물리적으로 부재하며, 자녀에게 반응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를 표현하는 행동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거부(Rejection)'로 명명하였다. 요인에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9 ~ .87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확인을 위한 Cronbach's α 는 .82로 양호한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요인 2는 5문항으로, 자녀의 주도성, 선택권을 지지하고, 자녀의 관점을 수용하고,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로 명명하였다. 요인에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6 ~ .69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확인을 위한 Cronbach's α 는 .75로 양호한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요인 3은 5문항으로,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가용하고 반응적이며, 온정과 애정을 표현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행동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온정(Warmth)'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에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1 ~ .88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확인을 위한 Cronbach's α 는 .80으로 양호한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요인 4는 5문항으로,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고, 복종을 요구하며, 자녀의 의견이나 선택을 부인하거나 변화시키는 행동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통제(Control)'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에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3 ~ .72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신

뢰도 확인을 위한 Cronbach's α 는 .72로 양호한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요인 5는 5문항으로, 비일관적인 행동, 불규칙, 예측하기 어려움, 임의적인 기준 적용 등의 행동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비일관성(Inconsistency)'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에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0 ~ .68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확인을 위한 Cronbach's α 는 .73으로 양호한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요인 6은 5문항으로, 자녀에게 명확한 가이드와 규칙을 제공, 예측 가능성, 일관성, 자녀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부모의 권위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구조(Structure)'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에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32 ~ .77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확인을 위한 Cronbach's α 는 .76으로 양호한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6개 하위요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자율성 지지, 온정, 구조의 긍정적 양육태도 요인 간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ps < .01$), 통제, 거부, 비일관성의 부정적 양육태도 요인 간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ps < .01$). 긍정적 양육태도 3요인과 부정적 양육태도 3요인 간에는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표 2).

표 2.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N=592)

	1	2	3	4	5	6
1. 자율성지지	-					
2. 통제	-.23**	-				
3. 온정	.55**	-.29**	-			
4. 거부	-.34**	.50**	-.47**	-		
5. 구조	.52**	-.12**	.55**	-.34**	-	
6. 비일관성	-.27**	.34**	-.18**	.34**	-.34**	-

** $p < .01$

본조사-확인적 요인분석

먼저, 본조사 549명 자료에서 영유아 양육태도 최종 30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문항은 왜도 및 첨도에서 안정적인 범위에 있었고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문항의 양호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영유아 자녀의 연령대 내에서 발달적 특성 간 차이 등으로 양육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만 1~2세, 만 3세, 만 4세, 만 5~6세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는 기각되었으며($\chi^2 = 1053.481$, $df = 390$, $p < .001$), 근사적합도 지수들은 CFI=.872, SRMR=.058, RMSEA=.056(90% CI = .052 ~ .060)으로 확인되었다. CFI는 .90 이상일 때, RMSEA와 SRMR은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가정되며, Hu와 Bentler(1999)는 RMSEA와 SRMR에서 0.08 이하인 경우도 양호한 적합도로 제안하였다. χ^2 값은 표본 크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근사적합도 지수를 토대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FI는 .90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RMSEA와 SRMR은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 영유아 양육태도척도의 적합도를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표본에서도 영유아 양육태도척도의 6요인 구조가 적절하게 검증되었다고 보았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관찰변수 요인부하량은 다음과 같다. 자율성 지지($\lambda = .55 \sim .77$), 통제($\lambda = .49 \sim .70$), 온정($\lambda = .59 \sim .71$), 거부($\lambda = .63 \sim .71$), 구조($\lambda = .47 \sim .67$), 비밀관성($\lambda = .51 \sim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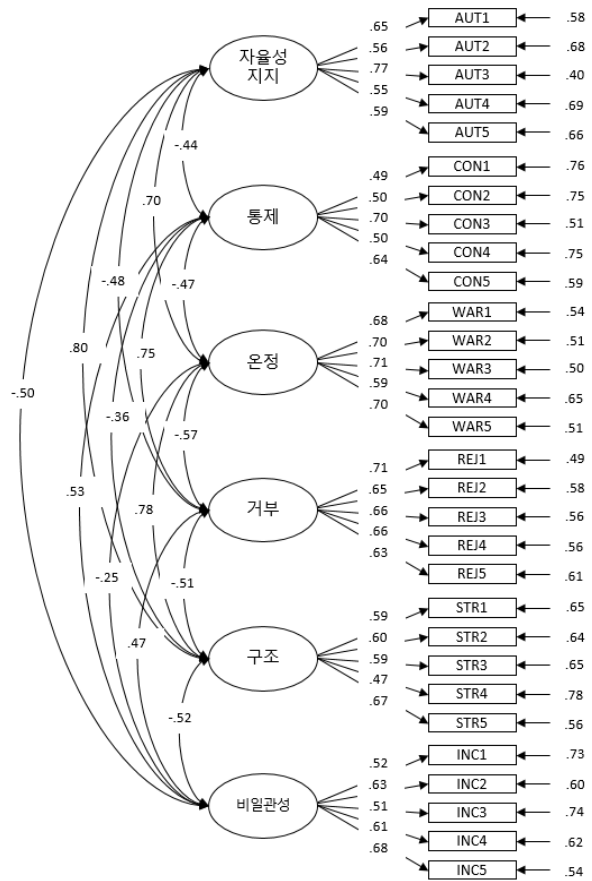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 추정치 ($N=594$)

Wang과 Wang(2012)이 제시한 .40 이상 기준에 따라 모든 문항에서 요인부하량은 양호하게 보여져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요인 구조에서의 요인간 상관계수를 통해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Kline(2011)이 제시한 .90 미만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그림 1). 본 조사에서의 최종문항에 대한 각 하위요인 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를 확인한 결과, 자율성 지지 .77, 통제 .70, 온정 .80, 거부 .79, 구조 .72, 비밀관성 .73으로 모든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가 양호하였다.

본조사-준거 타당도 검증

상관분석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의 영유아 양육태도척도와 유사한 대상군을 토대로 하며 비슷한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는 PBDQ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영유아 양육태도척도의 각 하위요인이 PBDQ 척도에서 유사한 개념을 포함하는 해당 하위요인과 높은 상관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자율성 지지는 PBDQ의 자율성 지지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73, p < .01$), 온정은 PBDQ의 정서적 온정과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r = .75, p < .01$), 구조는 PBDQ의 민주적 훈육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53, p < .01$). 또한, 통제($r = .64, p < .01$)와 거부($r = .56, p < .01$)는 PBDQ의 처벌적 훈육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비밀관성은 PBDQ의 허용적 훈육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

타냈다($r = .64, p < .01$). PBDQ의 불안한 침해는 온정($r = .35, p < .01$) 및 비밀관성($r = .29, p < .01$)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표 3). 따라서 본 연구의 영유아 양육태도척도는 기존 척도와 유의한 방향성의 상관이 검증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양육 관련 변인으로 양육효능감 척도와 상관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자녀 관련 변인으로 문제행동과 상관을 확인하였다. 양육효능감 측정을 위한 K-EGSCP 척도의 총점, 하위요인과 영유아 양육태도척도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 총점은 자율성 지지($r = .42, p < .01$), 온정($r = .63, p < .01$), 구조($r = .63, p < .01$)의 긍정적 양육태도와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통제($r = -.42, p < .01$), 거부($r = -.65, p < .01$), 비밀관성($r = -.35, p < .01$)의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표 4). 특히, 애정($r = .69, p < .01$), 놀이($r = .60, p < .01$)와 관련한 효능감은 양육태도

표 3. 준거 변인과의 상관관계 (N=23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자율성 지지	-											
2. 통제	-.28**	-										
3. 온정	.49**	-.34**	-									
4. 거부	-.34**	.51**	-.50**	-								
5. 구조	.55**	-.21**	.54**	-.38**	-							
6. 비밀관성	-.34**	.39**	-.24**	.35**	-.39**	-						
7. PBDQ_정서적온정	.38**	-.38**	.75**	-.55**	.55**	-.16*	-					
8. PBDQ_처벌적훈육	-.30**	.64**	-.49**	.56**	-.34**	.30**	-.44**	-				
9. PBDQ_불안한침해	-.08	-.08	.35**	-.07	.11	.29**	.40**	-.10	-			
10. PBDQ_자율성지지	.73**	-.30**	.52**	-.44**	.61**	-.37**	.60**	-.41**	.02	-		
11. PBDQ_허용적훈육	-.37**	.26**	-.23**	.35**	-.33**	.64**	-.27**	.37**	.33**	-.39**	-	
12. PBDQ_민주적훈육	.46**	-.20**	.45**	-.35**	.53**	-.35**	.51**	-.29**	.15*	.62**	-.28**	-

** $p < .01$, * $p < .05$ PBDQ: 부모 양육행동 질문지

표 4. 준거 변인과의 상관관계

(N=235)

	자율성 지지	통제	온정	거부	구조	비일관성
K-EGSCP 애정	.38**	-.41**	.69**	-.51**	.50**	-.25**
K-EGSCP 일상체계조직	.25**	-.24**	.35**	-.39**	.48**	-.29**
K-EGSCP 훈육	.23**	-.39**	.38**	-.59**	.39**	-.21**
K-EGSCP 놀이	.39**	-.25**	.60**	-.49**	.51**	-.23**
K-EGSCP 교육	.38**	-.30**	.39**	-.46**	.51**	-.41**
K-EGSCP 총점	.42**	-.42**	.63**	-.65**	.63**	-.35**

** $p < .01$, * $p < .05$ K-EGSCP: 양육효능감 척도

온정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일상체계조직($r = .48, p < .01$)과 훈육($r = .39, p < .01$), 교육($r = .51, p < .01$)은 양육태도 구조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통제, 거부, 비일관성은 5가지 양육효능감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59 \sim -.21, p < .01$).

마지막으로 영유아 양육태도척도와 K-CBCL 1.5-5를 통한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및 각 세부 하위요인은 모두 통제, 거부, 비일관성의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율성 지지, 온정, 구조의 긍정적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표 5). 문제행동총점에서 통제($r = .39, p < .01$), 거부($r = .54, p < .01$), 비일관성($r = .29,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율성 지지($r = -.25, p < .01$), 온정($r = -.26, p < .01$), 구조($r = -.25, p < .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표 5. 준거 변인과의 상관관계

(N=254)

	자율성 지지	통제	온정	거부	구조	비일관성
K-CBCL 불안우울	-.19**	.28**	-.12*	.38**	-.15*	.25**
K-CBCL 신체화	-.18**	.32**	-.22**	.38**	-.19**	.21**
K-CBCL 위축우울	-.20**	.26**	-.16**	.39**	-.18**	.27**
K-CBCL 정서불안정	-.14*	.30**	-.20**	.44**	-.17**	.22**
K-CBCL 주의집중	-.28**	.34**	-.25**	.45**	-.29**	.27**
K-CBCL 공격행동	-.28**	.41**	-.29**	.59**	-.26**	.26**
K-CBCL 내재화 문제	-.20**	.34**	-.21**	.46**	-.20**	.27**
K-CBCL 외현화 문제	-.29**	.41**	-.30**	.59**	-.28**	.27**
K-CBCL 문제행동 총점	-.25**	.39**	-.26**	.54**	-.25**	.29**

** $p < .01$, * $p < .05$

논 의

영유아기는 전 생애에 걸쳐 양육자의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하며 개인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여겨진다.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양적인 측면 및 질적인 측면을 통틀어 영유아기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며,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양육자는 연령이 많은 자녀를 둔 양육자와 비교해 양육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고된다(Bradley et al., 2001). 양육자가 제공하는 양육은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기 초기 경험의 형태로 지속되어 영유아기 이후까지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어 왔다(Bornstein, 2019). 따라서 아동의 발달을 설명하고 개입하기 위한 이론적, 임상적 목적에서 양육태도의 평가와 측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양육태도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고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하여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를 지지하거나 좌절시키는 양육태도를 6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6요인 구조를 가정한 후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양육태도척도는 6개 하위요인, 최종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6개 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는 자율성 지지 .77, 통제 .70, 온정 .80, 거부 .79, 구조 .72, 비밀관성 .73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6개 하위요인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율성 지지'의 양육태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계획과 문제해결의 상황에서 아동을 참여시키고, 주도적 행동을 격려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양육행동의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자기결정성 이론 기반 연구들에서는 자율성 지지의 양육태도로 자녀가 자신의 자유 의지를 느끼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핵심이라 보면서 자녀의 관점에 대한 수용과 인정, 공감의 표현, 선택권 제공, 주도성 지지의 양육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Grolnick & Lerner, 2023; Joussemet & Mageau, 2023).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으나, 공감의 표현이나 자녀의 관점을 인정 및 수용하는 내용의 문항은 온정의 양육태도와 중복으로 연관되어 자율성 지지로 고유하게 부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양육태도척도에서 자율성 지지는 양육자가 자녀 중심적 관점을 토대로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행동들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통제'는 5문항으로 구성되며,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좌절시키고 침해하는 양육자의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뜻한다. 자녀의 자율성을 좌절시키는 기제라는 점에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와 같은 심리적 압박을 유발하는 통제와 처벌과 같은 외적 통제를 모두 포함하여, 양육자의 기준에서 특정 행동을 강요하고 양육자의 잣대로 자녀를 평가하고 통제하는 행동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외적 통제 보다 심리적 통제가 불안, 우울 등의 정신병리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고 있어(Levitt et al., 2020), 심리적 통제와 외적 통제의 두 가지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두 가지 통제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의 필요성도 제안된다.

‘온정’은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해 자녀의 관계성 욕구 지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양육태도로 설명된다. 양육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핵심 차원의 하나로 제안되는 온정은 선행 연구들에서 애정, 관여, 개입, 반응성, 지지, 수용 등의 용어로 지칭되어 왔으며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참여(involve)로 명명되었다(Skinner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애정과 공감의 표현, 정서적 가용성, 지지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온정의 명칭이 해당 내용을 더 적절하게 나타낸다고 보았다.

‘거부’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녀에 대한 적대적 표현, 비난, 불승인, 무관심 등으로 설명되어왔다(Soenens et al., 2019).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관계성에 대한 자녀의 욕구를 침해하고 좌절시키는 양육행동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양육태도척도에서 거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거나 비반응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거부적 반응으로 구성되었다. 많은 척도들에서는 거부에 해당하는 차원에 자녀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학대적인 반응을 포함하기도 하나, 현대 양육에서는 강하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방식 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물러나 있거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행동들이 해당 차원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조’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양육태도척도에서는 양육자의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안내, 일관된 규칙 제공, 피드백 제공 등의 양육행동을 포함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행동 통제, 견고한 통제, 요구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왔으며,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유능감의 욕구를 지지하기 위한 양육태도로 설명된다. 즉, 구조의 양육행동에서 양육자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규칙을 주어 자녀가 행동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하며, 자녀의 유능감 촉진을 위해 자녀의 수준에 맞추어 피드백을 제공한다(Farkas & Grolnick, 2010). 본 연구의 예비문항에서는 자녀의 수준에 맞는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발판화를 마련하는 양육행동을 일부 포함하였으나, 이러한 문항들은 구조뿐만 아니라 자율성 지지와 온정에 같이 관련되어 최종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녀의 유능감을 지지하는 맥락에서 양육자의 발판화는 유의한 영향을 가질 것으로 시사되는 점에서 이를 위한 추가 척도의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하위요인 간 조합을 통해 자녀의 유능감을 지지하는 양육행동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일관성’은 5문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의 양육태도척도에서는 양육자의 비일관적이고 불규칙적인 행동, 명확한 규칙의 부재, 임의적인 기준의 양육행동을 포함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해당 차원은 자녀의 유능감을 침해하고 좌절시키는 양육태도로 자녀가 특정 목표 행동으로 가는 과정을 방해하여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게 하는 비수반성(noncontingency)의 개념을 강조한다(Skinner et al., 2005). 자기결정성 이론 기반의 연구들은 이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 혼돈(chaos)의 명칭을 주로 사용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혼돈은 용어 상 직관적 이해가 어려우며 해당 요인에서 양육자의 예측이 불가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특성이 주요하게 구성되어 있어 ‘비일관성’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공인타당도 검증에서 본 연구의 양육태도 척도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기존의 양육태도 측정 도구와 각각의 대응되는 하위요인 간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의 양육태도척도에서 6개 하위요인은 Reid 등 (2015)의 부모 양육행동 질문지(PBDQ)에서 대응되는 하위척도와 각각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본 척도의 자율성 지지와 PBDQ의 자율성 지지, 온정과 PBDQ의 정서적 온정, 구조와 PBDQ의 민주적 훈육에서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확인한 바, 본 척도의 자율성 지지, 온정, 구조의 문항들은 기존에 검증된 척도에서 유사한 개념을 의미하는 하위차원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관련 개념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관련해서는 비밀관성이 PBDQ의 허용적 훈육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본 척도의 통제와 거부 모두 PBDQ의 처벌적 훈육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척도의 비밀관성과 PBDQ의 허용적 훈육은 양육자의 비밀관적이고 불규칙적인 양육태도의 개념을 동일하게 반영하므로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BDQ의 처벌적 훈육은 위협이나 처벌로 자녀를 통제하는 외적 통제 방식의 양육행동을 포함하고 있어 본 척도의 '통제'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PBDQ의 처벌적 훈육에서는 심리적 통제의 개념은 포함하지 않아 본 척도의 '통제'가 자율성 욕구를 좌절시키는 통제적 행동을 좀 더 풍부하게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척도의 거부는 자녀의 관계성 욕구를 좌절시키는 양육행동으로 양육자가 관계에서 부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등과 관련되는데, PBDQ에서는 양육자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철수되어 있거나 무관심한 상태를 설명하는 문항이 부재하여 양육자의 적대적 표현, 거부적 표현, 부정적인 정서 표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처벌적 훈육'이 거부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척도의 통제와 거부, 비밀관성은 기존 척도와 유사한 부정적 양육태도의 개념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더하여, PBDQ의 '불안한 침해'는 본 척도의 '온정', '비밀관성'의 두 요인과만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긍정적 양육태도 요인과 부정적 양육태도 요인 모두와 관련되는 특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PBDQ의 불안한 침해는 부모의 지나친 관여와 간섭적 도움, 높은 허용을 반영하며, 문항 중 상당수는 자녀가 실망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요구를 과도하게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양육자의 과보호와 관련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양육태도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PBDQ의 불안한 침해를 양육자가 자녀와 온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자녀의 유능감을 손상시킬 수 있는 태도로 설명해볼 수 있다. 실제로 과보호 양육이나 헬리콥터 양육은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혼재된 결과로 보고되고 있으며(Howard et al., 2022; Hwang & Jung, 2022), 아동의 발달을 제한하는 면이 있지만 부모의 높은 관여가 동반되는 특징으로 설명된다. 과보호 양육태도와 같은 특정 양육태도 개념은 새롭게 개발된 본 척도에서의 하위요인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 기제를 일부 이해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양육자 관련 변인으로 양육효능감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녀 차원에서는 문제행동과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양육자 스스로에 대한 신념과 기대로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는 직·간접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높은 양육효능감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관련되며 낮은 양육효능감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지현, 2018;

정교영, 신희천, 2011). 양육효능감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양육태도척도에서 자율성 지지, 온정, 구조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양육효능감 척도 K-EGSCP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통제, 거부, 비밀관성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K-EGSCP의 하위요인과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긍정적 양육태도 경향이 높은 양육자일수록 높은 양육효능감과 연관되고 부정적 양육태도 경향이 높은 양육자는 낮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특히, 본 양육태도척도의 온정은 K-EGSCP의 애정과 놀이 영역과 관련한 양육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구조는 K-EGSCP 교육 영역 양육효능감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어 관계성 및 유능감 지지에 대한 각 양육태도가 관련된 양육효능감 영역과 밀접히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양육태도척도 하위요인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양육태도척도 하위요인 자율성 지지, 온정, 구조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통제, 거부, 비밀관성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를 침해하고 좌절시키게 만들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정신병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유아 자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낮은 통제와 자기조절(Taylor et al., 2013), 불안(Edwards et al., 2010), 공격성(Casas et al., 2006)과 관련됨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일부 종단연구에서는 영유아기에 경험한 체벌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주는 영향은 아동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달

시기까지 이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Baumrind et al., 2010). 본 연구의 양육태도척도 하위요인과 영유아의 문제행동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이론적 방향과 일치하게 나타나 본 척도의 준거타당도가 적절히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통제와 거부라는 문제행동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자녀의 문제행동과 연관되는 양육태도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양육태도척도는 영유아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와 새롭게 개발된 척도가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개발된 양육태도척도가 가지는 강점은 이론에 기반한 요인을 구성하고, 국내 맥락에 맞추어 문항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문화권에 따라 특정 양육태도 차원에 대한 설명력에 차이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는데, Marbell과 Grolnick(2013)의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자율성 지지의 양육태도 문항이 개인주의 문화권과 다르게 부하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정 양육태도 차원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행동이 문화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문항을 반영한 문항 개발과 타당화가 중요함을 뜻한다. 또한, 양육태도에 포함되는 구체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 시기에는 자녀의 사회화와 조절 능력 발달에 초점을 두어 규칙의 도입, 한계 설정과 같은 양육태도가 늘어날 수 있으며, 자녀의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 규칙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둘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양육태

도척도는 국내 맥락을 기반으로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서 주로 나타나는 실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양육자들이 자신의 실제적 양육행동을 보다 타당하게 점검하고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개발된 양육태도척도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근거로 하여 기본심리욕구의 충족 및 좌절과 관련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 검증되고 있는 6가지 핵심 양육태도에 초점을 둬으로써 간명하면서도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큰 측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에 강점을 가진다.

둘째, 새롭게 개발된 양육태도척도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를 모두 균형적으로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임상 장면에서 목적에 맞추어 구체적 양육 중재와 코칭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를 지원하는 양육은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연관되고 기본심리욕구를 좌절시키는 양육은 자녀의 정신병리 및 부정적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권미나, 2023; 김소현, 김아영, 2012; 김아영, 차정은, 2010; Brenning et al., 2015; Grolnick & Lerner, 2023; Soenens et al., 2017). 새롭게 개발된 척도를 통해 양육의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자녀의 발달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후속 연구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롭게 개발된 양육태도척도는 아동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개의 구체적 양육태도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자율성 지지, 통제, 온정, 거부, 구조, 비밀관성의 양육태도 각각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확장했음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일부 선행연구들은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육태도 요인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다(Lerner & Grolnick, 2020; Sierens et al., 2009). 즉, 양육태도 하위요인의 조합을 고려하여 실제 일상에서 복잡하게 나타나는 양육태도를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아동의 발달이나 문제행동을 강화하거나 해로운 영향을 중재하는 조합을 파악해 본다면 양육자의 양육태도에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태도척도가 가지는 의의와 강점에도 불구하고 척도 개발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고려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여 양육태도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현재 연구에서는 양육자 중 어머니만을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영유아 자녀의 어머니 외에 다른 양육자의 양육태도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을 가질 수 있다. 자녀의 양육에서는 보통 어머니가 많은 역할을 맡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공동양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아버지 또한 양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시기에 조부모가 양육에서 많은 비중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머니 외에 아버지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본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기 위한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또한 자녀의 발달과 적

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자녀의 인지적, 신체적 발달과 함께 부모-자녀 간 역동이 변화하는 등 각 발달단계에서 자녀의 심리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양육자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Soenens et al., 2017, 2019). 따라서 자녀의 발달 시기를 반영하여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양육태도 척도의 개발 또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동일한 하위요인 구조의 양육태도 척도를 활용한다면, 발달 시기에 따른 양육태도의 변화나 차이를 분석 및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태도 척도는 양육자 보고의 응답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측정은 경제적이며 쉽게 실시가 가능하여 연구 및 임상 장면에서 광범위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양육자의 자기보고식 검사의 특성 상 양육자가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어렵거나 방어적인 태도가 크다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양육태도에 대한 검증에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태도에 대한 관찰평정이나 제 3자 평정과 같은 다른 평정 방식의 측정도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양육태도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검증을 통해 보다 정확한 평정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증 단계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확인을 통해 척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양육자 대상으로는 양육효능감 척도를 활용하고

자녀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양육태도 척도에서 측정된 양육태도가 다른 양육 변인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자녀의 문제행동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양육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긍정적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로서도 중요성을 가진다(Grolnick & Lerner, 2023; Soenens et al., 2017). 추후 연구를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성, 정서 조절과 같은 변인을 포함하여 양육태도가 자녀의 긍정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면,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권미나 (2023).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예측요인 및 결과요인 간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39**(2), 101-117.
<https://doi.org/10.33770/JEBD.39.2.5>
- 권미나, 이진숙 (2024). 초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의 잠재유형 분류와 심리사회 적응 능력의 차이 및 양육행동의 예측효과 탐색. **정서·행동장애연구, 40**(1), 149-165.
<https://doi.org/10.33770/JEBD.40.1.5>

- 김계수 (201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김소현, 김아영 (201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개발과 타당화 -자기결정성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6(3), 717-738.
- 김아영, 차정은 (2010).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양육행동 지각,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자기조절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4(3), 563-582.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https://doi.org/10.21509/KJYS.2017.03.24.3.313>
- 백은주, 이진숙 (202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좌절의 매개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5(1), 123-144.
<https://doi.org/10.21197/JCEI.15.1.7>
- 성지현 (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1), 151-171.
<https://doi.org/10.35574/KJDP.2018.03.31.1.151>
- 성지현, 백지희 (2011).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 (K-EGSCP)의 타당화 연구: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 135-150.
- 오경자, 김영아 (2009).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부모용**. 서울: ㈜휴노컨설팅.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 Research Bulletin**, 11(1), 1-15.
- 유지연, 황혜정 (2022).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9(3), 1-28.
<https://doi.org/10.22155/JFECE.29.3.1.28>
- 이숙 (1991).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89-201.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윤희, 임원신 (2023).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육아지원연구**, 18(3), 81-111.
<https://doi.org/10.16978/ecec.2023.18.3.004>
- 정교영, 신희천 (2011). 한국판 부모 양육행동 척도(Korean-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K-PSC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287-1305.
<https://doi.org/10.15703/kjc.12.4.201108.1287>
- 정영선, 박경자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42(3), 359-370.
<https://doi.org/10.5723/kjcs.2021.42.3.359>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차현주 (2020).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황윤세 (2023). 어머니와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3, 4, 5세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 유아교육연구**, **25**(1), 33-51.
<https://doi.org/10.15409/riece.2023.25.1.2>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1997). Introduction: Adolescent socialization in context—the role of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5-11.
- Bartholomew, K. J., Ntoumanis, N., Ryan, R. M., Bosch, J., & Thøgersen-Ntoumani, C. (2011).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diminished functioning: The role of interpersonal control and psychological need thwar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11), 1459-1473.
<https://doi.org/10.1177/0146167211413125>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 1-103.
- Baumrind, D. (1989). Rearing competent children. In W. Damon (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pp. 349-378). San Francisco: Jossey-Bass.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Baumrind, D., Larzelere, R. E., & Owens, E. B. (2010). Effects of preschool parents' power assertive patterns and practi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0*, 157-201.
<https://doi.org/10.1080/15295190903290790>
- Bindman, S. W., Pomerantz, E. M., & Roisman, G. I. (2015). Do children's executive functions account for associations between early autonomy-supportive parenting and achievement through high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7*(3), 756-770.
<https://doi.org/fvvhx>
- Bornstein, M. H. (2019). Parenting Infa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3rd ed., pp. 3-55). New York: Routledge.
- Bradley, R. H., Corwyn, R. F., McAdoo, H. P., & Garcia Coll, C. (2001). The home environments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 I: Variations by age, ethnicity, and poverty status. *Child Development*, *72*(6), 1844-1867.
- Brenning, K., Soenens, B., Van Petegem, S.,

- & Vansteenkiste, M. (2015). Perceived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early adolescent emotion regulation: A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24*, 561-578.
<https://doi.org/10.1111/sode.12107>
- Casas, J. F., Weigel, S. M., Crick, N. R., Ostrov, J. M., Woods, K. E., Yeh, E. A. J., & Huddleston-Casas, C. A. (2006). Early parenting and children'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the preschool and home context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09-227.
<https://doi.org/10.1016/j.appdev.2006.02.003>
- Clerkin, S. M., Halperin, J. M., Marks, D. J., & Policaro, K. L. (2007).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labama parenting questionnaire-preschool revi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1), 19-28.
<https://doi.org/10.1080/15374410709336565>
- David-Ferdon, C., & Kaslow, N. J. (2008). Evidence-based psychosocial treatments for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1), 62-104.
<https://doi.org/10.1080/15374410701817865>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the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
- Edwards, S. L., Rapee, R. M., & Kennedy, S. J. (2010). Prediction of anxiety symptoms in preschool-aged children: Examination of maternal and paternal perspectiv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 313-321.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9.02160.x>
- Farkas, M. S., & Grolnick, W. S. (2010). Examining the components and concomitants of parental structure in the academic domain. *Motivation and Emotion, 34*, 266-279.
<https://doi.org/10.1007/s11031-010-9176-7>
- Gable, R. K., & Wolf, M. B. (1993). *Instrument development in the affective domain* (2nd ed.),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https://doi.org/10.1007/978-94-011-1400-4>
- Gray, M. R., & Steinberg, L. (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4), 574-587.
<https://doi.org/10.2307/353561>
- Grolnick, W. S. (2003). *The psychology of parental control: How well-meant parenting backfires*. Hillsdale, NJ: Erlbaum.
<https://doi.org/10.4324/9781410606303>
- Grolnick, W. S., Deci, E. L., & Ryan, R. M. (1997). Internalization within the family: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 In J. E. Grusec & L. Kuczynski (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handbook of contemporary theory* (pp. 135-161). New York: Wiley.
- Grolnick, W. S., & Lerner, R. E. (2023). How parental autonomy support, structure, and involvement help children flourish: Considering interactions, context, and diversity. In R. M. Ry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p. 491-508). Oxford Academic.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7600047.013.26>
- Grolnick, W. S., & Pomerantz, E. M. (2009). Issues and challenges in studying parental control: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3(3), 165-170. <https://doi.org/10.1111/j.1750-8606.2009.00999.x>
- Grolnick, W. S., & Slowiaczek, M. L. (1994).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and motivational model. *Child Development*, 65(1), 237-25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4.tb00747.x>
- Hennan, M. R., Dornbusch, S. M., Herron, M. C., & Herting, J. R. (1997). The influence of family regulation, connection, and psychological autonomy on six measures of adolescent function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34-67. <https://doi.org/10.1177/07435548971210>
- Hoeve, M., Dubas, J. S., Eichelsheim, V. I., Van der Laan, P. H., Smeenk, W., & Gerris, J. R.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 749-775. <https://doi.org/10.1007/s10802-009-9310-8>
- Howard, A. L., Alexander, S. M., & Dunn, L. C. (2022). Helicopter parenting is unrelated to student success and well-being: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perceived parenting and academic motivation during the transition to university. *Emerging Adulthood*, 10(1), 197-211. <https://doi.org/10.1177/2167696820901626>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Hwang, W., & Jung, E. (2022). Helicopter parenting versus autonomy supportive parenting? A latent class analysis of parenting among emerging adults and their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well-being. *Emerging Adulthood*, 10(3), 731-743. <https://doi.org/10.1177/2167696821100049>
- Jewell, J. D., & Stark, K. D. (2003). Comparing the family environments of

-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 or depression.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2, 77-89.
<https://doi.org/10.1023/A:1021310226400>
- Johnson, S. A. (2004).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with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healthy development: An application of a motivational model of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ortland State University, Portland, OR.
- Joussemet, M., Landry, R., & Koestner, R. (2008).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parenting. *Canadian Psychology*, 49, 194-200.
<https://doi.org/10.1037/a0012754>
- Joussemet, M., & Mageau, G. A. (2023). Supporting children's autonomy early on: A review of studies examin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toward infants, toddlers, and preschoolers. In R. M. Ry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p. 529-547). Oxford Academic.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7600047.013.28>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ition). New York, NY: Guilford.
- Levitt, M. R., Grolnick, W. S., Caruso, A. J., & Lerner, R. E. (2020). Internally and externally controlling parenting: Relations with children's symptomatology and adjust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11), 3044-3058.
<https://doi.org/10.1007/s10826-020-01797-z>
- Lerner, R. E., & Grolnick, W. S. (2020). M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The roles of maternal autonomy support and children's affect. *Motivation and Emotion*, 44(3), 373-388.
<https://doi.org/10.1007/s11031-019-09813-6>
- Locke, L. M., & Prinz, R. J. (2002). Measurement of parental discipline and nurtura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895-930.
[https://doi.org/10.1016/S0272-7358\(02\)00133-2](https://doi.org/10.1016/S0272-7358(02)00133-2)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IV.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 1-101). New York, NY: Wiley.
- Manongdo, J. A., & García, J. R. (2011). Maternal parenting and mental health of Mexican American youth: A bidirectional and prospective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2), 261-270.
<https://doi.org/10.1037/a0023004>
- Marbell, K. N., & Grolnick, W. S. (2013). Correlates of parental control and

- autonomy support in an interdependent culture: A look at Ghana. *Motivation and Emotion*, 37(1), 79-92.
<https://doi.org/10.1007/s11031-012-92892>
- McCoach, D. B., Gable, R. K., & Madura, J. P. (2013). *Instrument development in the affective domain* (3rd ed.). New York: Springer.
- McEachern, A. D., Dishion, T. J., Weaver, C. M., Shaw, D. S., Wilson, M. N., & Gardner, F. (2012). Parenting Young Children (PARYC): Validation of a self-report parenting measur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 498-511.
<https://doi.org/10.1007/s10826-011-9503-y>
- McKee, L. G., Jones, D., Forehand, R., & Cuellar, J. (2013). Assessment of parenting behaviors and style, parenting relationships, and other parent variables in child assessment. In D. H. Saklofske, C. R. Reynolds, & V. L. Schwann (Eds), *The Oxford Handbook of Child Psychological Assessment* (pp. 788-821), Oxford Academic.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9796304.013.0035>
- Meir, E. I., & Gati, I. (1981). Guidelines for item selection in inventories yielding score profi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4), 1011-1016.
- Meunier, J. C., & Roskam, I. (2009). Self-efficacy beliefs amongst parents of young children: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8, 495-511.
<https://doi.org/10.1007/s10826-008-9252-8>
- Morsbach, S. K., & Prinz, R. J. (2006). Understanding and improving the validity of self-report of parenting.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1), 1-21.
<https://doi.org/10.1007/s10567-006-0001-5>
- Parent, J., & Forehand, R. (2017). Th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scale (MAP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 2136-2151.
<https://doi.org/10.1007/s10826-017-0741-5>
- Peisch, V. D., Pomerantz, H., & Parent, J. (2017). *Reliability of parent-reported parenting questionnaires: A review. Post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Biennial Meeting*. Austin, TX.
- Reid, C. A., Roberts, L. D., Roberts, C. M., & Piek, J. P. (2015). Towards a model of contemporary parenting: The parenting behaviour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 *PloS one*, 10(6), e011417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14179>
- Roksa, J., & Potter, D. (2011). Parent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ducational advantage. *Sociology of education*, 84(4), 299-321.

- <https://doi.org/10.1177/0038040711417013>
Romano, E., Tremblay, R. E., Farhat, A., & Côté, S. (2006). Development and prediction of hyperactive symptoms from 2 to 7 years in a population-based sample. *Pediatrics*, *117*(6), 2101-2110.
<https://doi.org/10.1542/peds.2005-065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 Ryan, R. M., Deci, E. L., & Vansteenkiste, M. (2016). Autonomy and autonomy disturbances in self-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Research on motivation, attachment, and clinical process. In D. Cicchetti (E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1 Theory and method* (3rd ed., pp. 385-43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ierens, E., Vansteenkiste, M., Goossens, L., Soenens, B., & Dochy, F. (2009). The synergistic relationship of perceived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in the predic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57-68.
<https://doi.org/10.1348/000709908X304398>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502_3
- Soenens, B., Deci, E. L., & Vansteenkiste, M. (2017). How parents contribute to children's psychological health: The critical role of psychological need support. In L. Wehmeyer, T. D. Little, S. J. Lopez, K. A. Shogren, & R. Ryan (Eds.), *Handbook on the development of self-determination* (pp. 171-187). New York: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4-024-1042-6_13
- Soenens, B., Vansteenkiste, M., & Beyers, W. (2019). Parenting adolesce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3rd ed., pp. 111-167). New York: Routledge.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13).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6th ed.), Boston: Person Education.
- Taylor, Z. E., Eisenberg, N., Spinrad, T. L., & Widaman, K. F. (2013). Longitudinal relations of intrusive parenting and effortful control to ego-resiliency during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84*, 1145 - 1151.
<https://doi.org/10.1111/cdev.12054>
- Waltz, C. F., & Bausell, R. B. (1981). *Nursing research: Design, statistics, and computer*

analysis. F.A. Davis Company.

Wang, J., & Wang, X.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West Sussex, United Kingdom: Higher Education Press.

Yaghmaie, F. (2003). Content validity and its estimatio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3(1), e105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ix-Factor Parenting Attitudes Scale for Caregivers of Pre-School Children

Areum Yang¹

Eun Sil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²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a Six-Factor Parenting Attitudes Scale for preschool caregiver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six parenting attitudes that support or frustrate children's needs fo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were organized into six subfactors of autonomy support, control, structure, inconsistency, warmth, and rejection. After reviewing relevant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79 initial items were developed and 63 preliminary items were selec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used involving 592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resulting in 30 items selected for six factors. To validate this scale, we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549 moth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ix-Factor Parenting Attitudes Scale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parent-reported parenting attitudes. This study developed a scale in a rational-empirical manner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which would be useful in clinical and educational settings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Keywords : Caregivers of pre-school children, Six-factor parenting attitudes scale, Self-determination theory